

## 부산시장 지원 연설

사회 :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남구 구민 여러분, 부산이 낳은 정치지도자, 서민의 벗인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많은 격려의 박수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이 음악에 맞추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노풍의 주인공이신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당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써 시작하겠습니다. ( 박수 )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남구 구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부산이 낳은 자랑스러운 정치지도자 부산의 자랑, 우리 없는 서민의 벗인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박수 )

노무현 후보 : 안녕하세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노무현입니다. ( 박수 )

제가 몸짓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건드렸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붙여놓은 대로 뻗뻗하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저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산은 한나라당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은 한나라당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

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왜 부산은 한나라당이지요? 왜 부산은 한나라당이냐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더 여쭙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부산은 한나라당이라서 어떻게 되었지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민자당이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꼭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만 야당을 버리고, 아니 야당의원 53명 데리고 민정당으로 들어 가셨어요. 민자당을 만들었어요.

이런 정치가 아니지요. 변절입니다. 야합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리고 87년 6월 민주혁명을 이루어 낸 부산 시민들한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한 수준이 아니고 계속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었습니다. 왜 부산시민들이 그 동안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설마 여당으로 가더라도 설마 여당으로 가더라도 그 동안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해 주었던 때의 그 정신을 지켜 주겠지, 민주화해 주겠지, 군사독재시절에 팔시받는 돈 없고 뺨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겠지, 아니면 우리 부산이라도 살게 해 주겠지, 밀자 밀어 옹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 밀었잖아요.

그렇죠?

밀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도 금융실명제 잘한 것 같아요.

하나회, 하나회 숙청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6공보다는 문민정부가 좀 낫더라고요. 낫긴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산이 심각하게 된 겁니다. 부산에는 그때 김영삼 대통령 얼굴보고 무조건 미는 버릇이 생겨 가지고 무조건 민자당도 밀고 신한국당도 밀고 한나라당도 밀고 무조건 보이는 대로 밀어 주어버렸어요 그렇죠?

무조건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됐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17개, 21개 국회의원 몽땅 신한국당이 받으니 지역구를 좀 줄여서 17개 만들어 놓아도 17개 국회의원 몽땅 한나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이 뭐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기분이 좀 좋았다치고 그 다음에 부산시민 여러분 기분 좋은 것이 뭐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 시장이 부산시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따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장부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아주 궁금합니다.

장부 한번 확 들추어서 시원하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수 )

그렇지 않습니까?

보았지요 보았겠지요 시의원들이 보았겠지요 국회의원들이라도 국정감사 자리에 와서 보았겠지요. 그런데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전부 한나라당 한통속이니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았겠느냐 대충 보고 말았잖겠습니까. 보아도 못 본 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제대로 못 보았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제대로 아직 못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수 )

한번 보아야겠는데 한번 보아야겠는데... 한번 봅시다.

이제 부산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산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산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 뭐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대로 장부를 볼 수 있는 시의원들 전부 바꾸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민주당은 시의원 후보를 많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볼 방법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을 바꾸어 버리면 새 시장이 들어가서 전부 다 볼 겁니다. 그렇지요. 다 봅니다.

( 박수 )

장기집권은 반드시 독재가 되고 독재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대기를 꼽아도 여기에서는 한나라당이 시장이 된다는 이 도시에 당연히 장기집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시장이 콧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집권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부산시장과 부산시의 공무원들로부터 좀 더 공손하고 부드럽고 좀 더 정성들인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좀 더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 박수 )

서비스 경쟁시킵시다

이유 없이 눈 딱 감고 무조건 한나라당만 찍어주는데 어떻게 해서 한나라당의 서비스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바뀔 수가 있어야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서비스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시장 한번 바꾸어 버립니다.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경제수석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경제하면 일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부산 경제 어렵겠습니까.

괜찮은 물건 내놓았으니까 이번에 바꿉시다. 이번에 바꿉시다. 그래야 부산도 민주주의 되고, 그래야 부산도 깨끗해지고, 그래야 부산도 시장과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깨끗한 부산을 위해서 투명한 부산을 위해서 서비스를 질이 높은 부산을 위해서 이번에 생각을 바꿉시다.

이회창 총재가요 다니면서 부정부패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아니 부정한 이 정권을 심판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이지요?

저는 비록 제가 민주당이지만 잘못이 있으면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는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요새는 게이트가 유행이지만 한때는 풍이 유행을 했습니다. 풍...세풍, 북풍, 총풍, 안풍, 아시죠? 풍이 유행이었을 때 풍하고 이회창 총재하고 관계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풍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저는 이회창 후보 얼굴입니다.

세금을 거두었대요, 이회창 후보 동생이. 이회창 후보 오른팔이라고 하는 서상목 의원이 세금을 거두었대요. 국세청 공무원 앞세워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국고에 안 넣고 이회창 후보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 일부 조금 떼 가지고 한인옥 여사 핸드백도 사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풍 아닙니까.

그죠?

몰랐대요.

몰랐대요.

몰랐으니까 책임 없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도 김홍걸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미리 몰랐을 테니까 책임 없는 것 아니에요? 감히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서상목 의원 구속시키겠다고 체포동의 요구했더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그 것 통과 안 시키려고 방탄국회를 다섯 번씩 열었습니다. 서상목 씨 한 사람을 위해서 방탄국회를 다섯 번 열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체포를 막기 위해서 방탄국회 연 것이 토탈 열 일곱 번입니다.

죄지은 사람 체포하지 못하게 국회 안에서 보호해 주는 방탄국회 연 것을 열 일곱 번이나 열었습니다.

자기 부하가 잘못하면 방탄국회로 막아주고 남의 부하가 잘못하면 잡아넣는 것이 이회창식 법입니까?

( 박수 )

아니 심판할 사람이 해야지, 심판을 하면 노무현이가 해야지 왜 이회창 씨가 심판한다고 나오니까?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부산시민은 한나라당입니까?

깨끗한 정권, 깨끗한 정부, 웃기지 마십시오. 손부터 씻고 오십시오.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정부를 만들려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자꾸만 더러운 것이 묻어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회창 총재가 깨끗한 정부를 만들려면 손 씻고 와라, 손 씻고 오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부산시민이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렸는데 이게 죽지도 않고 살아 가지고 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영남 호남이 갈라서 죽자 살자 싸우면 나라가 잘 됩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호남이 몽땅 반대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영남이 몽땅 반대하고, 잘한 것도 반대하고, 못한 것도 반대하고, 무조건 반대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됩니까.

역사상 정치가 분열되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일이 없습니다. 분열된 정치 그 이후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던 역사가 없습니다. 분열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처럼 지역을 갈라서 싸우면 그것이 분열인 것입니다. 이 분열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분열을 끝내고 우리는 동서가 하나로 손잡고 전 국민이 하나로 손잡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국민이 서로 합의해서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개혁을 성공시켜야 우리 한국이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려면 개혁해야 하고 개혁하려면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 통합을 제가 이루기 위해서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호남 사람, 호남 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민주당에서 손잡고 노력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손을 잡아주면 당장 우리 정치는 동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개혁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통합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박수 )

분열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남북의 분단의 시대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역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역사가 다시 특권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제 저를 도와주십시오.

( 박수 )

국민들이 서로 갈라서서 싸우지 않고 함께 힘을 합하고 그래서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 위에서 번영을 이루어 내자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회창 씨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권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특권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남지방에 와 가지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집회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망치려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어디서 “깡판“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혼이 좀 났는데 속도 쓰리고 해서 지금 “깡판“이라는 말을 한번 더 쓰겠습니다.

남북대화를 깡판 놓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한이헌 후보 선거운동 하는 시기에 우리 허만동 후보 도와주는 찬조연설하

러 와 가지고 제 자랑만 실컷 하고 간다 그러시죠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갑니다.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뒷말 길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뒷말은 생략하고 제 자랑만 하고 가겠습니다.

12월에 제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박수 )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선 우리 허만동 후보, 한이현 후보 꼭 좀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부탁은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제 고향 부산을 쳐다보고 부산을 뭔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시장 쳐다보고 기분 좀 좋게 해 주십시오.

( 박수 )

시장이 무슨 결재를 해 달라고 오긴 오실 텐데 그때 기분이 좋아야 결재가 잘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